

# 유아의 지능, 가정양육환경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 The Relations among Intelligence, Parenting Environment and Self-Regulation of Preschool Children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강사 김혜순\*

순천제일대학 사회복지과

강사 강기숙\*\*

School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

Lecturer : Kim, Hye-Soon

Dept. of Social Welfare, Suncheon First College

Lecturer : Kang, Gi-Sook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 among intelligence, parenting environment and self-regulation of preschool children. The subjects were 81 children between the ages 3 and 6 and their mothers from one day-care center in Seoul. T-test,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Firs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by sex difference was significant to only girls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by age was not significant. Parents who had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were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intelligence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was significant to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Second, the preschool children who got higher scores in intelligence scale were higher self-regulation ability. Third, the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showed significance only in motor intelligence which was one of the subscales of intelligence scale. Fourth, the effect of children's intelligence and parenting environment on preschoolers' self-regulation were relatively presented as intelligence( $\beta=.34, p<.01$ ), trauma state( $\beta=0.31, p<.05$ ) and development state( $\beta=.23, p<.05$ ) which were subscales of parenting environment.

---

▲주요어(Key Words) : 자기조절(self-regulation), 언어성 지능(language intelligence), 동작성 지능(motor intelligence), 언어성 지능(motor intelligence)

### 1. 서론

유아기의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유아기 이후의 사회·정서적 발달, 학업성취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며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밝혀지고 있다(곽혜경, 조복희, 1999; 이정란, 2003; Bronson, 2000;

Brownell, Etheridge, & Hugerford, 1997; Kopp, 1982; Perry, 2002). 생애 초기의 자기조절은 단기간의 의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달적 결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기조절이 가능한 유아는 이후 신중하고, 주의집중력이 있고, 분별심이 있으며 겸손하고, 협동적이고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under & Block, 1989)반면,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의 결핍은 주의집중 저하, 과잉행동, 학습동기부족, 반항행동, 공격행동, 대인관계 갈등, 분노, 적대감정과 같은 '반항성 장애(Oppositional Deficient Disorder)' 증상들을

\* 주저자 : 김혜순 (E-mail : heidi-77@daum.net)

\*\* 교신저자 : 강기숙 (E-mail : g9974021@daum.net)

포함한 통제부족과 관련된다(Mischel, 1989, Kochanska et al, 1995). 생애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이 이후의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Honing, 1985; Silverman & Ragusa, 1992). 그러므로 유아의 낮은 자기조절능력은 이후의 사회적·정서적, 행동적 문제들에 대하여 더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발달은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여 사회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주로 설명되어졌다. 이들은 자기조절능력이 보상과 처벌의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고 설명하고,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동의 기준이나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념에서는, 주로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의 특성 또는 양육방식이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다(Kuczynski et al., 1987).

이에 반해, Piaget와 Kohlberg의 인지발달이론은 주로 아동의 도덕적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옳고 그름에 대한 인지적 판단능력의 발달양상을 설명한다. 즉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성인과 사회의 제재인 타율성 단계에서 상호존중에 기초한 공정성과 호혜성에 근거하는 자율성 단계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자기조절 행동은 자기가 세운 계획이나 목적에 따라 기능적으로 조직된다. 즉 이들은 내면화(internalization)를 단순히 외적 관계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 또는 정신적 표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 싸인이나 외적중재의 도움으로 새로운 수준의 행동을 조직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Vygotsky(1978)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Kopp(1982)과 Maccoby(1983)는 자기조절을 환경에 따라 행동을 시작하고 멈추기, 목적추구를 지연하기, 행위, 정서, 각성의 세기를 조절하기 등 성인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 행동을 점진하고 조정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Brownell, Etheridge, Hugerford(1997)는 자기조절은 자신의 목적과 상반된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는 능력으로서 특별한 상황에 적절히 행동과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이란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고 유혹에 저항할 수 있으며 불쾌한 상황을 인내해낼 수 있고 성인의 지시에 순응할 수 있는 것으로 영유아기 이후의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Honing, 1985). 바람직한 목표에 맞게 활동을 지연시킬 수 있고 다른 외부적인 감시없이도 사회적으로 인정된 행동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보고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은 어린 유아기에 획득할 수 있으며(양옥승, 1993) 자기통제능력이 떨어지는 유아는 이러한 기술 획득에서 지연을 보인다(Kopp, 1989).

이외에도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자기조절능력을 인지조절의 측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점진하고 평가하고 조절하는 상위인지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Bodrova & Leong, 1996; Diaz, Neal, & Williams, 1990).

위와 같은 정의들을 종합해볼 때,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란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해나가며 상황적 요구에 따라 활동을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으며, 사회적, 교육적 장면에서 언어적 신체적 활동의 강도, 빈도와 지속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조절 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유아의 만족지연 및 순응행동 등의 자기조절 발달은 주의집중 및 인지적 표상 과정과 관련되며(Micheal et al, 1984), 유아의 인지 양식 중 사려성의 발달은 유혹저항, 만족지연 등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설명된다(강기숙·이경님, 2001; 이경님, 2001; 허수경·이경님, 1996; 이미라, 1999).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의 인지능력 정서능력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이정란, 2003). 또한 유아의 인지능력 발달은 정서 및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정서 및 행동 통제의 발달과도 연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Kopp, 1989; Bronson, 2000).

인지능력의 발달은 유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인식, 해석, 회상 가능하게 하며, 현재의 상황에서 정서 표현에 관한 제한 범위를 알게 한다. 이는 정서와 인지를 같은 과정으로 보는 견해(Sroufe, 1995) 그리고 순수한 인지적 또는 순수한 정서적인 상태는 없으며 서로 영향을 준다는 Piaget(1962)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요약해보면, 유아의 인지능력은 유아의 자기조절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기조절 중 자기점검 구성요인은 기억, 이해, 지각, 판단 등이 포함되는 상위인지 능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이정란, 2003)고 보고된다.

한편, 자기조절능력은 생래적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내부로 발달해나가는 능력으로 보상과 처벌의 과정을 통하여 획득되므로 이 과정에서 특히 양육자의 특성, 또는 양육방식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Kuczynski, Kochanska, Radke-Yallow, & Grinius, 1987)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예를 들면, 초기, 도덕적, 사회적 규칙의 획득에 관한 걸음마기 유아의 이해와 순종의 발달에 관한 연구의 결과에서 특히 부모의 영향력이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부모는 자녀가 지켜야할 규칙에 관하여 의사소통을 시작하고, 적절한 행동에 관하여 아동에게 요구하며, 해서는 안될 행동을 제한하면서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영유아기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양육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초점은 행동적 자기조절을 촉진하거나 주 양육자의 기준을 유아로 전이시키는 매개적 존재로서의 양육자의 성격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Gralinski & Kopp, 1993).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이 어린 시기에 형성되어 이후 지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양육환경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가정양육환경이란 광범위하게는 한 가정의 실제적인 사회경제적 위치뿐만 아니라 양육태도, 양육신념, 양육행동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정양육환경을 대표하는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대리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

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사회적 지원체계를 비롯하여 부부관계등의 영향력을 받으며, 부모와 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ecker, 1981). 합리적·수용적·온정적이면서 독립심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가정환경은 유아의 자기조절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Kochanska & Aksan, 1995; Rothbart et al, 1998; Silverman & Ragusa, 1991; 남미숙, 1995; 안미경, 1996)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어왔다.

자기조절에 관한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보면, 첫째, 아동의 자기조절력 발달은 연령 증가에 따라 자기조절의 외재적 요소에 의한, 즉 부모의 지시나 금지, 순종에 의한 타율적 조절 행동에서 이것이 내재화되어 아동의 내재적 자율적 조절로 전이되어 발달한다. 둘째, 아동의 자기조절력 발달에 관한 많은 이론적 접근의 공통점은 성숙의 과정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Kopp와 Luria는 유아의 표상적 사고능력, 회상기억능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과 언어적 발달이 아동의 타율적 통제에서 자율적 조절로 전이되는 가장 중요한 인지적 요인으로 본다. 정신분석적입장과 인지이론적 관점에서 성숙의 과정을 중요시한다. 셋째, 자기조절에 대한 이론과 발달모형은 공통적으로 내재적 자기조절 발달과정의 주요 발달적 요인으로 아동의 사회화과정에서의 내재화를 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연령, 성, 인지능력, 정서능력, 사회적 능력, 부모의 양육행동 등의 많은 관련변인들이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진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인지능력이 자기조절에 매우 큰 변인이라는 연구결과와 비교하여볼 때 유아의 자기조절능력들은 유혹저항과 만족지연실험과 관련된 자기통제행동으로 주로 연구되어져왔을 뿐 종합적이면서 세부적인 정보를 주는 인지능력척도가 관련변인으로 사용된 자기조절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인지력(cognition ability)이란 지능, 문제해결력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Flavell et al., 1993)고 보고되어왔으므로 인지능력의 측정이 지능검사로 실시되어져 왔으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능력 측정은 대부분 간편 지능검사로 이루어져 유아의 지능의 하위영역들과 자기조절능력의 하위변인과의 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못했다고 보여 진다.

인지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들에 따른 인지능력의 차이는 언어적이고 동작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차이, 사회성, 잠재능력의 차이가 설명되어질 수 있으므로(박혜원의, 1996),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역시 차이가 있을 것임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흔히 만족지연능력이나 유혹저항능력 또는 행동억제력으로 이해되어져 만족지연실험이나 유혹저항과제에서의 수행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자기조절력이 몇가지 하위구성요소로 이루어져있다는 선행연구(이정

관, 2003)에 의거하여 지능의 하위영역들과 자기조절력의 하위 변인들이 어떻게 관련지어지는 가를 밝히는 것은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부모가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양육태도나 양육행동 등은 자기조절 능력에 주요관련변인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어머니의 임신 및 수유상태와 유아의 발달력, 외상상태, 부부관계의 친밀도를 포함한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가정양육환경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아의 지능, 가정양육환경, 그리고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몇 개의 가설검정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아교육 및 아동심리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유아들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해 보다 더 포괄적이고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유아의 지능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평가는 현재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수준과 이후의 잠재력을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검사의 하위영역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하위구성 영역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보다 더 세밀하고, 분석적인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또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가정양육환경에서 어떠한 하위요소가 유의한 상관을 갖는지 밝혀보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지능, 가정양육환경과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그 상대적 영향력을 함께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성 및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각각 어떠한가?
- 2) 유아의 지능에 따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어떠한가?
- 3)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유아의 자기조절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 4) 유아의 자기조절행동에서의 유아의 지능, 가정양육 환경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하는 중류생활수준인 유아들이 많이 다니는 한 어린이집에서 임의 표집된 만 3세 이상 6세 사이의 유아들과 그들의 어머니 81쌍이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주로 30대(70%), 40대(21%)였고, 어머니는 30대(91%)로 대부분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58%)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 또한 대졸(54%)이 많았다. 가계의 월수입은 200만원대(6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만원대(22%), 100만원대(11%)순이었다.

## 2. 연구도구

### 1) 자기조절 척도

연구척도로 이정란(2003)의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의 네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 (1) 자기평가

유아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내용과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자기평가”에서 언어적 표현이 강조되는 것 Vygotsky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조절 발달과 언어적 표현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연구결과(양옥승, 1993; 양옥승, 김혜리; 1995)에 기초하였다.

#### (2) 자기결정

유아가 사전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동과 관련된 내용,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 자율적으로 문제해결 전략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기결정’이라고 하였다.

#### (3) 행동억제

외적통제에 순응하고, 하고 싶은 충동이나 행동을 억제하거나 좀더 좋은 보상을 위해 행동을 지연시키고, 내면화된 규칙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 부정적 정서를 억제함으로써 관련된 행동을 통제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정서성

외적통제에 대한 순응이나 외적통제 기준의 내면화에 의한 행동억제이기보다는 정서적 또는 기질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격적 특성을 포함하므로 ‘정서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총 50개의 문항은 Likert식 5점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지능척도; K-WPPSI(웍슬러 유아용 지능검사)

인지(cognition)란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능,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인간의 지적 또는 정신적 사고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Flavell, Miller & Miller, 1993).

Wechsler(1952)는 지능을 “유목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그리고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능력 등의 종합적인 또는 전반적인 능력”이라고 보았다(박혜원외, 1996, 재인용). 웍슬러 지능검사는 인지능력검사를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준화된 개인검사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지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박혜원·곽금주·박광배(1996)가 국내표준화 작업을 마친 K-WPPSI(한국 웍슬러 유아지능검사)

를 사용하여 측정된 지능점수를 유아의 지능으로 본다.

웍슬러 지능검사에서 언어성 지능은 개인이 가진 언어적 능력수준을 요약한 정보를 제공하며, 동작성 지능은 개인의 시·공간 지각 및 운동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점수의 차이는 문화적 차이와 교육적 차이, 또는 잠재능력의 차이, 또는 운동적 요소,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동작성 지능검사에는 ①모양맞추기 ②도형 ③토막짜기 ④미로 ⑤빠진곳 찾기 ⑥동물 짝짓기 그리고 언어성 지능검사에는 ①상식 ②이해 ③산수 ④어휘 ⑤공통성 ⑥문장으로 구성되어있다(박혜원 외, 1996).

본 연구에서 웍슬러유아용지능검사는 총지능지수, 동작성지능지수, 언어성 지능지수를 각각 산출한다.

K-WPPSI는 만3세-7세 3개월 아동용 유아지능검사 도구로서 ‘동작성 검사’와 ‘언어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 3) 가정양육환경 척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볼 수 있는 문항들과 함께 고병채(1999)의 자녀양육형태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정양육환경척도는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임신 및 수유상태, 발달력, 외상상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를 위해 문항들을 Likert식 4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연구의 자료는 2004년 9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수집되어졌다. 배부된 총 98부의 질문지 가운데 회수된 질문지는 87부(89%)였으며, 총 연구대상 연령(만 3세이상 6세미만) 아동들 98명중 84명만이 K-WPPSI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아동과 어머니의 77쌍이 연구분석에 사용되었다. 웍슬러지능검사 결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검사실시와 보고자격을 보유하고 검사실시의 경험이 축적되어 숙련된 아동학전공 석사학위자가 검사를 수행하였다. 웍슬러 지능검사는 10가지의 소검사를 모두 실시하였고 통상적으로 한 유아에게 1시간 내외의 검사시간이 소요되었다. 질문지 구성문항들은 아동학전공의 박사과정생 2명의 내용 검토를 받아 최종결정하였다.

연구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적 분석은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그리고 유아의 지능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N=77)

연령	성별	N	M	SD
3세	남아	9	12.72	1.59
	여아	6	13.35	1.54
	합계	15	12.97	1.55
4세	남아	12	12.34	2.20
	여아	13	13.50	1.41
	합계	25	12.94	1.89
5세	남아	20	12.94	1.18
	여아	17	14.02	1.06
	합계	37	13.43	1.24
전체	남아	41	12.71	1.60
	여아	36	13.72	1.27
	합계	77	13.18	1.53

3세 남아의 자기조절능력은 평균이 12.72(SD=1.59)이고, 여아는 13.35(SD=1.54)이며, 4세 남아는 12.34(SD=2.20) 여아는 13.50(SD=1.41), 5세 남아는 12.94(SD=1.18) 여아 14.02(SD=1.06)로 나타났다. 연령별 점수를 살펴보면 3세 12.97(SD=1.55), 4세 12.94(SD=1.89), 5세 13.18(1.53)로 3세와 5세에 비하여 4세의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와 여아간의 자기조절능력은 모든 연령에서 여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령과 성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분산분석 (N=77)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연령	5.321	1	11374.53	1.22
성	15.116	2	2.66	6.95*
연령×성	.69	2	.35	.16
오차	154.38	71		
합계	13566.69	77		

\*p<.05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95, p<.05),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성과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들은 남아보다 여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유아의 지능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유아의 지능점수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유아의 동작성 지능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X > M + SD$ 인 경우는 동작성 지능이 높은 집단,  $X < M - SD$ 인 경우는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유아의 동작성 지능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동작성 지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기평가( $t = -2.24, p < .05$ ), 행동억제( $t = -2.36,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시지각 정보처리 능력이 측정되는 동작성 지능이 높을수록 유아들의 자기개념 및 자기평가와 관련된 자기조절능력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작성 지능이 높을수록 외적 및 내적 통제에 순응하고, 행동지연을 위해 내재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표 3> 유아의 동작성 지능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N=77)

	집단구분	M(SD)	t
자기평가	상	3.84(0.56)	-2.24*
	하	3.45(0.77)	
자기결정	상	3.51(0.47)	-1.43
	하	3.30(0.68)	
행동억제	상	3.56(0.59)	-2.36*
	하	3.15(0.74)	
정서성	상	2.79(0.59)	.97
	하	2.66(0.43)	
자기조절	상	13.57(1.19)	-2.03*
	하	12.68(2.11)	

\*p<.05

아의 지능점수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유아의 언어성 지능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X > M + SD$ 인 경우는 언어성 지능이 높은 집단,  $X < M - SD$ 인 경우는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유아의 언어성 지능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또한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언어성 지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성에서는 언어성 지능이 낮은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자기평가( $t = -2.63,$

$p<.05$ ), 자기결정( $t=-2.89$ ,  $p<.01$ ), 행동억제( $t=-2.59$ ,  $p<.05$ )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유아의 언어성 지능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N=77)

	집단구분	M(SD)	t
자기평가	상	3.87(0.54)	-2.63*
	하	3.46(0.74)	
자기결정	상	3.62(0.39)	-2.89**
	하	3.26(0.61)	
행동억제	상	3.59(0.59)	-2.59*
	하	3.21(0.64)	
정서성	상	2.60(0.39)	1.47
	하	2.77(0.55)	
자기조절	상	13.68(1.13)	-2.80**
	하	12.65(1.75)	

\* $p<.05$ , \*\* $p<.01$

### 3.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유아의 가정환경변인과 자기조절능력의 상관관계는 <표 5> 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22에서 .35사이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결정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고, 유아의 성격적 특성을 포함하는 지각적 민감성, 화를 내는 정도, 슬픔을 느끼는 정도, 기분전환을 하는 정도 등에서 세기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평가 능력과 자기결정은 높았고, 유아의 정서성을 나타내는 지각적 민감성, 화를 내는 정도, 슬픔을 느끼는 정도, 기분전환을 하는 정도 등에서 세기는 낮았다.

임신 및 수유상태, 외상상태와 발달력은 자기조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5>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소와의 관계 (N=77)

	자기조절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아버지 학력	.14	.22*	.05	-.27*
어머니 학력	.33*	.29**	.21	-.35**
소득	.14	.16	.05	-.10

\* $p<.10$ , \* $p<.05$ , \*\* $p<.01$

### 4. 유아의 지능과 가정양육환경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지능, 가정환경변인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각각 수행하여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언어성 지능( $\beta=.25$ ,  $p<.05$ )과 어머니 학력( $\beta=.25$ ,  $p<.05$ )으로 나타나 두 변인이 유아의 자기평가를 16%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언어성 지능이 높아져 어휘와 상식이 풍부하고 이해력이 높을수록, 어머니 학력이 높아져 유아와의 촉진적인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을수록 유아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 학력( $\beta=.28$ ,  $p<.05$ )으로 나타나 이 변인은 유아의 자기결정을 8%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유아가 사전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문제해결 전략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자기결정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동작성 지능( $\beta=.26$ ,  $p<.05$ )으로 나타나 이 변인은 유아의 행동억제를 7%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즉, 유아의 지능에서 동작성 지능이 높은 경우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므로 이것은 외적 통제에 순응하고, 하고 싶은 충동이나 행동을 억제하거나 좀더 좋은 보상을 위해 행동을 지연시키고, 내면화된 규칙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 부정적 정서를 누를 수 있는 행동억제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학력( $\beta=-.35$ ,  $p<.01$ )으로 나타나 이 변인은 유아의 정서성을 12%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정서적 또는 기질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정서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표 6> 유아의 지능과 가정양육환경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N=77)

독립변인	자기조절			
	자기평가( $\beta$ )	자기결정( $\beta$ )	행동억제( $\beta$ )	정서성( $\beta$ )
인지능력	동작성 지능		.30*	
	언어성 지능	.28*		
가정양육환경	어머니 학력	.24*	.28*	-.35**
$R^2$	.18	.08	.07	.12
F	8.04**	6.23*	5.49*	10.89**

\* $p<.05$ , \*\* $p<.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지능, 가정환경변인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를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동작성 지능, 언어성 지능, 가정환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을 살펴본 결과,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차이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유아의 연령의 증가는 뇌의 성숙 등과 관련되며 이는 자기조절의 발달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자기조절이 가능한 연령을 2세 정도로 보고 있으나 성인의 지시에 대한 반응에서의 행동 조절은 9개월 정도면 관찰 가능하다(Berk, 1986; Kopp, 1982)는 연구들을 통해 영아기 초기부터 자기조절이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의 연령과 자기조절의 발달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는 않는다. 이는 자기조절에 대한 정의와 측정 방법이 연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본다.

먼저 과제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순응 과제와 만족지연 과제는 유아의 연령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들(Kopp, 1982; Granlinski & Kopp, 1993; Vaughn, 1984)이 있다. 예를 들면 Power(1986)는 유아의 순응에 대한 연구에서 2-4세에서는 자기조절의 발달이 이루어졌지만 4-6세에서는 발달적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Kochanska 등(1995)의 연구에서는 순응을 자발적인 순응과 상황적인 순응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자발적인 순응에서는 33개월과 46개월에서 연령적 증가가 나타났으나 상황적 순응에서는 연령적 감소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들은 Kopp(1982)이 2세는 타인조절에서 자기조절로 이행하기 시작하는 연령이라고 가정 한 것과 일치된 결과라고 해석하면서 2세 이전에는 상황적 순응(성인이 있을 때만 순응하는, 즉 타인조절)이 발달하지만 2세 이후부터는 성인이 존재하지 않아도 순응하는 자발적인 순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주으로써 자기조절의 발생시기를 2세 전후로 보고 있다.

이렇듯 유아의 연령과 자기조절의 발달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자기조절의 연령적 발달 변화가 일반적 경향이기는 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주의 체계, 사려성 등의 발달과 관련되며 과제에서 요구하는 전략적 특성에 따라 발달 시기와 발달의 지속기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연행동과 연령간의 관계를 밝힌것으로서 7-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Mischel(1968)의 연구와 5-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Mischel과

Metzner(1962)의 연구와 4-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Yates(1981) 등의 연구가 있는데 모두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지연된 강화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연행동이 증가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에 따라 자기조절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통제가 높다는 연구(이경남, 2001; Kendall & Wilcox, 1979)와 일치한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바람직한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지연하는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조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조절은 성차가 있다고 보았다(Kendall & Wilcox, 1979; Eisenberg, 1996).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자기조절을 가지며, 여아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으나 남아는 쉽게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되고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았다(Eisenberg, Fabes, Shepard, Murphy et al., 1997). 또한 4세부터 10세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조절과 정서성을 연구한 결과에서 아동의 자기조절은 여아가 모든 연령에서 남아보다 주요 요인별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여아가 남아보다 기초를 유지하고자 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주의적 조절의 수준을 획득하기 때문으로 여겨지는 반면, 남아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자기조절의 최소한의 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Eisenberg et al., 1996)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곽혜경, 1999; 강기숙·이경남, 2001)도 있어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성차에는 일관성이 없었다.

둘째, 유아의 지능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동작성 지능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동작성 지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기평가, 행동억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동작성 지능의 특징인 감각운동적 요소, 정서적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유아의 언어성 지능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또한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언어성 지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성에서는 언어성 지능이 낮은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Bronson(2000)에 의하면 인지능력의 발달은 정서표현 및 정서 사건의 이해방식에 영향을 주므로 정서 및 행동 통제의 발달과도 관련된다. 또한 인지능력의 발달은 유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인식·해석·회상 가능하게 하며, 현재의 상황에서 정서표현에 관한 제한 범위를 알게 한다. 이에 준해 유아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기대, 의미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해석, 인지적 평가 등에 의존하여 정서적 반응(예 : 기쁨, 공포, 화 등)의 범위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는 정서와 인지를 같은 과정으로 보는 견해(Sroufe, 1995) 그리고 순수한 인지적 또는 순

수한 정서적인 상태는 없으며 서로 영향을 준다는 Piaget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유아의 인지능력은 충동억제 및 자기조절을 위한 전략사용의 발달을 이끈다(Bronson, 2000). 또한 만족지연행동과 지능의 관계를 연구한 Melikian(1959)는 IQ가 높고 통찰력과 사전계획능력이 많은 지적인 아동들이 IQ가 낮은 아동들에 비하여 상정을 더 잘 사용함으로써 행동의 곁고를 예상하고 이에 따른 보상과 벌을 더 잘 비교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유아의 인지발달과 자기조절과의 일반적인 관계를 밝히는 연구 외에도 유아의 인지양식 중 사려성과 자기조절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도 많이 있다. 유아의 인지양식(사려성/충동성)의 발달과 자기조절의 발달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강기숙·이경님, 2001; 김혜리, 1994; 이경님, 2000, 2001; 허수경·이경님, 1996; 이미라, 1999; Kendall & Wilcox, 1979; Toner, Holstein & Hetherington, 1977)은 자기통제 또는 자기조절의 효율적인 수행은 무엇보다도 5세 경에 뚜렷이 발달되는 사려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즉 상황을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상황적 요구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려성을 유혹저항, 만족지연 등의 자기조절 행동의 발달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자기조절적 과제에서 사려성이 높은 아동이 충동적인 아동보다 자기통제 또는 자기조절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아의 지능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일관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

셋째,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은 유아의 자기결과와 정서성과 관계를 나타냈고, 어머니의 학력은 유아의 자기평가, 자기결정 그리고 정서성과 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가정의 소득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경이 유아의 자기조절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배경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며 이는 자기조절과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에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연구(이정란, 1989),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지연행동을 비교한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일수록 지연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한미란, 1986) 등이 있다.

또한,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선호나 만족은 하류계층의 특징이며, 지연된 보상의 선호는 중류계층의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Walls와 Smith의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그들은 하류층 아동이 중류층 아동에 비해 즉각적인 보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Walls의 연구에서 개인의 자기 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때 자발적인 기다림의 경향을 덜 나타낸다고 하였다. Singer(1955)는 가족 생활패턴의 일관성은 지연된 보상의 실현에 대한 상대적인 확신을 가져오는 반면 부모 특히 아버지가 상대적으

로 더 낮은 능력을 가지며 생활패턴도 예측하기 힘든 하류층 가족의 경우는 지연의 가치가 아동들에게 덜 명백하므로 비교적 일관적인 생활패턴을 규칙으로 하는 가족상황의 아동들이 지연행동을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Raver 등(1999)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유아의 또래와의 사회적 능력과 주의적 통제 그리고 효과적인 정서적 자기조절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조절 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정란(1989)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아-어머니간의 상호작용 유형에 차이가 나며 이는 유아의 참조 전략을 사용하는 자기조절 행동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Dunn과 Brown(1994)에 의하면 유아가 정서의 기술적 습득은 정서표현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을 무시하고 감정표현 방식을 경멸하면서 유아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강제적인 훈육을 행하는 부모는 유아의 정서지능이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Goleman, 1995). 반면, 유아의 감정상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유아로 하여금 현재의 감정을 유발하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유아는 바람직한 정서발달을 보이게 된다.

넷째, 유아의 지능과 가정양육환경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기조절의 하위요소별로 살펴본 결과, 자기평가는 언어성 지능과 어머니 학력이 18% 설명하여 유아의 언어성 지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평가능력이 높았다, 유아의 자기결정은 어머니 학력이 8%를 설명하여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결정능력이 높았다. 그리고 행동억제는 동작성 지능이 약 7%, 정서성은 어머니의 학력이 12% 설명해주었다.

유아의 자기조절에는 다른 변인들에 비해 어머니의 학력이 각 하위요소들에 고루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몇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주된 요소로서 유아의 지능을 고려하였고, 유아의 지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웨슬러유아용지능검사(K-WPPSI)를 사용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의 하위구성요소들과의 상관을 보았다. 포괄적인 인지능력이 자기조절능력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으나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인지능력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차후의 연구설계가 있다면 동작성과 언어성의 두가지 하위구성요소만이 아닌 보다 다면적인 지능의 하위구성요소들과 자기조절의 상관이 밝혀질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다 다양한 지능의 하위구성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능척도가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사회적 성취, 학업적 성취 및 정



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만큼 유아의 지능 하위 구성요소별 특성에 기초한 가정과 교육현장에서의 유아의 자기조절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셋째, 유아기의 자기조절력이 이후의 학업적 성취와 사회적 성취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발달개념이므로 실증적 자료로서의 국내의 자기조절 중단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집의 제한성으로 인해 본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 표집의 대표성을 갖춘 집단을 대상으로 심화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접수일 : 2005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03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6월 20일

【참 고 문 헌】

강기숙·이경남(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22(4).

고병채(1999). 가정의 자녀양육형태검사. 서울: 상담심리검사연구소.

곽혜경·조복희(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0(1).

김혜리(1994). 언어적 계획 및 평가(VPE)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려성과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미숙(1995). 가정환경에 따른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의 관계분석, **건국대학교대학원논문집**, 41.

박혜원외(1996). K-WPPSI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안미경(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옥승(1993). 유아교육과정 연구의 재개념화 II: Vygotsky의 발달생학적 인식론 활용. **유아교육연구**, 13, 93-113.

양옥승, 김혜리(1995). 언어적 계획 및 평가(VPE)프로그램에 의한 유아의 자기조절 기초형성. **유아교육연구**, 15(1), 143-155.

이경남(2000). 학령전 아동의 자기통제,사려성과 자아개념의 관계. **동아교육논총**, 26.

이경남(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2), 46-68.

이미라(1999). 아동의 인지양식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욕구충족지연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란(1989). Vygotsky의 발달이론에 따른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과 유아의 자기조절과의 관계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란·양옥승(2003). 유아의 자기조절구성능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69-80.

조복희(1999). 아동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한미란(1986). 유아의 욕구충족지연행동에 관한 연구: 사회적 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수경·이경남(1996). 인지양식 유형과 보상의 제시형태에 따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 발달. **아동학회지**, 16(2).

Becker, G. S.(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Berk.(1986). Private speech: Learning out loud. *Psychology Today*, 20, 34-42.

Bodrova, E. & Leong, D. J.(1996). *Tools of mind: A Vygotskian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s Hall.

Bronson, M. B.(2000). Recognizing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55(2), 32-37.

Brownell, C., Etheridge, W. & Hugerford, A.(1997). *Socialization of self-regulation: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ver age and contex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Diaz, R., Neal, C. & Williams, M.(1990). The social origins of self-regulation. *Vygotsky and Education: Instructional implications and application of sociohistorical psychology*. In L. C. Moll(Ed.), 127-154.

Dunn, J. & Brown, J.(1994).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62, 1352-1366.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7-247.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Murphy, B. C., Guthrie, I., Jones, S., Friedman, J., Poulin, R. & Maszk, P.(1997). Contemporaneous and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from regulation and emotionality. *Child Development*, 68(4), 642-664.

Flavell, J. H., Miller, P. H. & Miller, S. A.(1993). *Cognitive development(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Funder, D. C. & Block, J.(1989). The role of ego-control, ego-resiliency, and IQ in the delay of gratific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41- 1050.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Bantam Books.
- Gralinski, J. H. & Kopp, C. B.(1993). Everyday rules for behavior: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3), 573-584.
- Honing, A. S.(1985). Compliance, control and discipline. *Young Children*, 41, 48-52.
- Kendall, P. C. & Wilcox, L. E.(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 Kochanska, G., Aksan, N. & Koenig, G.(1995).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oots of preschoolers conscience: Committed compliance and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1752-1769.
- Kopp, C. B.(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Kopp, C. B.(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43-354.
- Kuczynski et, al.(1987). Socialization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Strategies for long term and short-term 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061-1073.
- Maccoby, E. E.(1983). *Social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Javanovich, Inc.
- Melikian, L.(1959) Preference for delayed Feinforcement; An experimental study among palestinian Arab refugee childr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0, 81-86.
- Mischel, W., Shoda, Y. & Rodriguez, M. L.(1989). Delay of gratification in children. *Science*, 244. 933-937.
- Micheal, W. & Mischel, H. N.(1984).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of self-contro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54, 603-619.
- Perry, N. E.(2002). Promoting nonviolent behavior in children. *Scholarstic Early Childhood Today*, 16, 26-29.
- Piaget, J.(1970). *Piaget's theory*. In P. M. Mussen(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3rd ed )*, N. Y. Willey.
- Piaget, J.(1962). *Language of operations intellectuelles (Language and intellectual operations.)* In *Collectif, problems de psycholinguistique problems of psycholinguistics'*. Paris. Presses University de press.
- Power, T. & Chapiieski, M.(1986). Childreaing and impulse control in toddlers: A naturalistic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 271-275.
- Raver, C. C., Blackburn, E. K., Bancroft, M. & Trop, N. (1999). Relations between effective emotional self-regulation, attentional control, and low-income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0(3), 333-350.
- Silverman, I. W. & Ragusa, D. M.(1991). Child and maternal correlates of impulse control in 24-month-old children: Correction,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7(1).
- Singer, J. L.(1955). Delayed gratification and ego development: Im:ication for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 259-266.
- Sroufe, L. A.(1995). *Emotional development: The organization of emotional life in the early year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ner, I. J., Holstein, R. B. & Hetherigton, E. M.(1977). Reflection-impulsivity and self-control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 239-245.
- Vaughn, B. E., Kopp, C. B. & Krakow, J. B.(1984). The emergence and consolidation of self-control from eighteen to thirty months of age: Normative trends and individu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55, 990-1004.
- Vigotsky, L. S.(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the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 Walls, R. T.(1973). Delay of Feinforcement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4, 689-692.
- Walls, R. T. & Smith, T. S.(1970). Development of preference for delayed reinforcement in disadvantaged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 118-123.